

이정후 다리 사이로 타구 잡았다

중계진 '10년은 회자될 캐치' 극찬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외야수 이정후가 10년간 회자될 만한 기적의 수비를 펼쳤다. 자이언츠는 17일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탬파베이 레이스와의 경기에서 7대 1로 승리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정후의 믿기 힘든 캐치가 빛났다.

4회 초, 레이스의 안디 디아스가 자이언츠 에이스 로건 웨의 83마일

짜리 스위퍼를 받아쳐 '트리플스 앨리' 방면으로 깊숙이 타구를 날렸다. 이정후는 달려가다 미끄러지듯 몸을 날려 타구를 잡아냈는데, 공이 다리 사이에 끼었다. 관중들은 탄성을 질렀고, 순간 경기장은 흥분으로 가득 찼다.

경기 후 이정후는 "바람이 많이 불어 공이 멀리 밀려가고 있었다. 그래서 슬라이딩을 했는데, 공이 가슴에서부터 몸 밑으로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다"며 "결국 종아리 사이로 공을 눌러 잡았다. 웃긴 장면이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웃이었다"고 설명했다.

옆에서 이를 목격한 자이언츠 우익수 드류 길버트는 미소만 지을 수밖에 없었고, NBC 스포츠 베이 에어리어의 중계진 듀언 쿠퍼는 "이건 올해의 캐치가 아니라 10년의 캐치"라며 극찬했다. 쿠퍼는 1974년 클리블랜드에서 데뷔해 반세기 가까이 메이저 리그를 지켜본 인물이다.

자이언츠는 최근 홈에서 15경기 중 단 1승에 그칠 정도로 부진했지만, 이날 승리와 함께 이정후의 슈퍼플레이가 반등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안게 됐다. 경기 후 밤 펠빈 감독은 "순간 발목이나 다른 부위를 다쳤을까 걱정됐다. 이정후가 잠시 쓰러져 있었기 때문"이라며 "리플레이를 보고서야 무릎 사이에 공을 끼워 잡은 것을 알았다. 이런 캐치는 처음 본다"고 감탄했다.

LPGA 포틀랜드 클래식 이와이 아키에 첫 우승

일본의 이와이 아키에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스탠더드 포틀랜드 클래식에서 정상에 올랐다. 이와이는 17일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컬럼비아 에지워터 컨트리클럽(파72·6,497야드)에서 열린 대회 최종 4라운드에서 6언더파 66타를 기록, 최종 합계 24언더파 264타로 우승을 차지했다. 우승 상금은 30만 달러다.

올해 LPGA 투어에 데뷔한 신인 이와이는 쌍둥이 동생 이와이 치사토와 함께 나란히 챔피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치사토는 지난 5월 리베라 마야오픈에서 첫 승을 거둔 바 있다. 이번 대회에서도 19언더파 269타를 기록해 공동 3위에 오르며 자매 동반 선전에 성공했다.

2002년생인 이와이 아키에는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에서 2023년과 2024년 각각 3승씩을 거

둔 뒤, 이번 대회에서 마침내 LPGA 첫 우승을 일궈냈다. 이로써 LPGA 투어 역사상 자매 챔피언은 아니카-살로타 소렌스탐(스웨덴), 에리아-모리야 쭈타누간(태국), 제시카-넬리 코다(미국)에 이어 이와이 자매가 네 번째 사례가 됐다.

이번 시즌 LPGA 투어는 개막 이후 21개 대회에서 아직 2승 선수가 나오지 않은 이례적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일본 선수들은 다케다 리오, 사이고 마오, 야마시타 미유, 이와이 자매가 합작해 총 5승을 기록하며 단일 국가 최다 우승국에 올랐다. 이 가운데 사이고를 제외한 4명은 모두 신인으로, 신인 돌풍을 입증했다.

신인상 포인트 경쟁에서는 다케다가 1,005점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 야마시타(990점), 이와이 치사토(681점), 이와이 아키에(572점)가 뒤를 잇고 있다. 한국의 윤이나는 267점으로 7위에 올라 있다.

LA 램스, 뉴욕 자이언츠 구단가치 100억불 클럽에

NFL 새 시즌 개막을 앞두고, 필라델피아 이글스와 델러스 카우보이스가 맞붙는 개막전만큼이나 주목받는 것이 있다. 팀 가치 평가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카우보이스는 포다시 NFL에서 가장 가치 있는 구단으로 꼽혔다.

스포티코가 이번 주 공개한 연례 NFL 구단 가치 평가에 따르면, 델러스 카우보이스의 가치는 무려 128억 달러에 달한다. 이는 외식 체인 텍사스 로드하우스(115억 달러)보다 높으며, 반도체 기업 텍사스 인스트루먼트(1.760억 달러)에는 못 미치지만 여전히 압도적인 수치다.

지난해 8월 NFL이 사모펀드 투자자들에게 구단 지

분 참여를 허용한 이후, 두 개 구단이 추가로 '100억 달러 클럽'에 합류하며 전체 구단 가치가 크게 뛰었다. 스포티코는 LA 램스(104억 달러), 뉴욕 자이언츠(103억 달러)의 가치를 각각 34% 상승한 것으로 평가했다.

전체 구단 평균 가치도 20% 가까이 올라 현재 71억 3,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NBA 평균 가치 46억 달러(보스턴 셀틱스의 61억 달러 매각 승인 이전 수치)와 비교해 훨씬 높고, MLB 평균 가치 28억 2,000만 달러의 두 배 이상이다.

NFL은 경기장 안팎에서 기록을 새로 쓰고 있으며, 특히 구단 가치 상승은 리그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와 맞물려 미국 프로 스포츠 시장에서 독보적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JGP WELSHOES

건강한 몸을 만드는 기적신발!

JGP Welshoes로 통증을 끝내보세요!

신는 순간 혈액순환 촉진, 지압 효과, 체형 교정, 통증 완화 등 뛰어난 효과를 제공합니다

신어봐야 알지요! 체험해 보세요! 무료체험 환영!

기적신발TV

YouTube

www.jgpamerica.com



기능성 건강신발 발명 특허 획득 HEALTHY SHOES

통증없이, 가볍하게

걸어보자! 뛰어보자!



골프 신발



운동화

발을 알고 신발을 신으면 더욱 건강해 질 수 있습니다.

JGP 기능성 신발은 어떤 신발 인가요?

- ✓ 허리에 강한 힘을 준다
- ✓ 체력을 증진시킨다
- ✓ 신체의 균형을 잡아준다
- ✓ 신체를 교정한다

아스티바, OTC로 구입하세요

OC 부에나파크점 T.714.646.1122

6281 Beach Blvd. #106, Buena Park, CA 90621 (부에나파크 커머스 플라자: 예약문의 방문환영)



LA 올림픽 갤러리아 T.213.330.6810

3250 W. Olympic Blvd. #3F,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 갤러리아 마켓 3층 푸드코트 옆)